

번호 III-2

제 목	국문	수가차등제를 위한 질병분류연구				
	영문	A Study on Disease Classification for the Case-specific Medical Price Differential System				
저 자 및 소 속	국문	문옥륜, 김창엽*, 조홍준**, 김윤***, 김수영****, 이영성*****, 송윤미*****, 선우성**, 김남순 서울대보건대학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울산의대 가정의학교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림의대 예방의학교실, 충북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교실				
	영문	OK Ryun Moon, ChangYup Kim*, Yoon Kim**, Su Young Kim***, Young Sung Lee****, Yoon Mi Song*****, Sung Sunwoo** Nam Soon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Ulsan University. 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Univerity,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분 야	보건관리(V) 역 학() 환 경()	발 표 자	일반회원(V) 전 공 의()	발표 형식	구 연() 포스터(V)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V) → 완료 예정 시기: 99년 10월					
<p>1. 연구 목적</p> <p>수가차등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어떤 질병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적절한 것이지를 결정하는 질병분류작업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각 의료기관에서 보아야 할 적절한 질병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차등수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질병양상도 변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점점 질병을 세분화하는 추세이다. 이런 환경에서 의료기관별로 질병을 분류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며 많은 임상 의사들은 같은 질병이라도 질병의 초기에서 말기까지 경과가 다르고 혹은 같은 질병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들어 질병분류작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질병이 우리사회 인구집단에서 보여지는 보편적 양상을 기준으로 하여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적정 질병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등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p> <p>2. 연구 방법</p> <p>수가차등제를 위한 질병분류작업을 수행하고자 우선 가정의학전문의 6명으로 질병분류를 위한 첫번째 전문그룹이 형성되어 질병분류원칙을 논의하여 99년 1.2월 의료보험 청구빈도수가 많은 100대질환을 분류하여 제 1안을 만들었다. 두 번째로 각 임상과목별로 100대질환을 세분하여 이를 1, 2, 3차 의료기관별로 봉직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선정하여 질병분류를 의뢰하여 제 2안을 작성하였다. 세 번째는 각 임상학회에 수가차등제 및 질병분류작업의 의의와 이미 만들어진 질병분류안을 제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p>						

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비뇨기과 학회에 의뢰를 하여 제 3안 만들었다. 위 세안을 종합하여 의료기관별 질병분류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소아과질환 별도분류 및 서로 다른 임상과목에서 중복분류된 질환에 대한 분류 등에 관한 것을 논의하고 각 안마다 서로 다른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패넌을 구성하여 의료기관별 적정 질병분류안을 만들었다.

3. 연구 결과

1) 전체질환 임상과목별 분포

100대질환에 들어있는 임상과목은 외래질환에서는 내과질환이 28.2%로 가장 많으며 소아과 및 정형외과질환이 20%내외이고 이비인후과, 안과 및 피부과질환이 10%내외이며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및 치과질환이 5%내외이고 이밖에도 신경과 비뇨기과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입원질환에는 내과가 25.1%로 가장 많으며 소아과질환이 21.6%였으며 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질환이 10%내외이고 산부인과 신경외과질환이 5%내외이고 이밖에도 이비인후과, 신경과, 안과, 비뇨기과 질환이 포함되어있다.

2) 제 1안을 만든 가정의학 전문의그룹에서 세운 질병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흔한 질환이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이나 진단 및 치료난이도가 낮고 치명률이 낮은 질환을 1차질환으로 보았다. 2차질환은 흔한 질환이면서도 진단 및 치료의 난이도가 약간 있고 중등도의 치명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하였다. 3차질환은 상대적으로 희귀하면서 진단 및 치료의 난이도가 높고,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질환이다. 특히 진단 및 치료를 위해 ESWL MRI, PET 등 고가장비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수술 및 진단과정이 필요한 경우와 협진이 필요한 질환을 3차질환으로 분류하였다.

3) 질병분류체계

외래질환 :

1차기관 적합질환, 1.2차기관 적합질환, 2차기관 적합질환, 2.3차기관 적합질환, 3차기관 적합질환

입원질환:

1.2차기관 적합질환, 2차기관에 적합질환, 2.3차기관에 적합질환, 3차기관 적합질환

2) 전체질환 의료기관별 질병분류결과

외래질환에서는 1차 및 1.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질병이 가정의안이 68.9%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의안 60.6%, 학회안 52.2%로 나타났다. 반대로 3차의료기관에 적합한 질병으로 분류된 질환은 학회안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안 1.2%, 전문의안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질환은 외래질환과는 반대로 1.2차의료기관에 적합한 질병이 전문의안이 49.1%로 가장 많으며 학회안 29.8%였고, 가정의안이 11.5%로 가장 낮았다. 3차의료기관에 적합한 질병은 가정의안 22.6%, 학회안 11.2%, 전문의안 2.7%였다. 전반적으로 외래질환은 1차 및 1.2차의료기관에 적합한 질병을 기준으로 할 때 세안의 차이가 10%를 넘지 않으나 입원질환은 약 40%정도 되는 심한 편차를 보였다. 3차의료기관에 적합한 질병도 외래질환보다는 입원질환에서 세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질병분류안의 일치율

세안을 종합하여 하나의 안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일치율이 매우 낮아서 차선으로 비교적 대표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전문의안을 보류한 나머지 두 안을 종합해본 결과, 입원질환 60.84%, 외래질환 66.4%의 일치율을 보였다.

전체외래질환 질병분류안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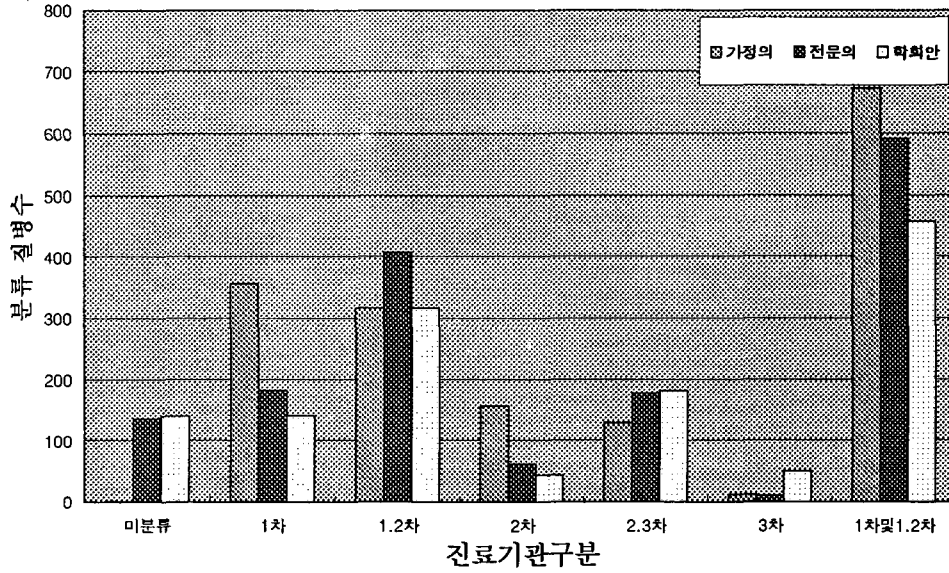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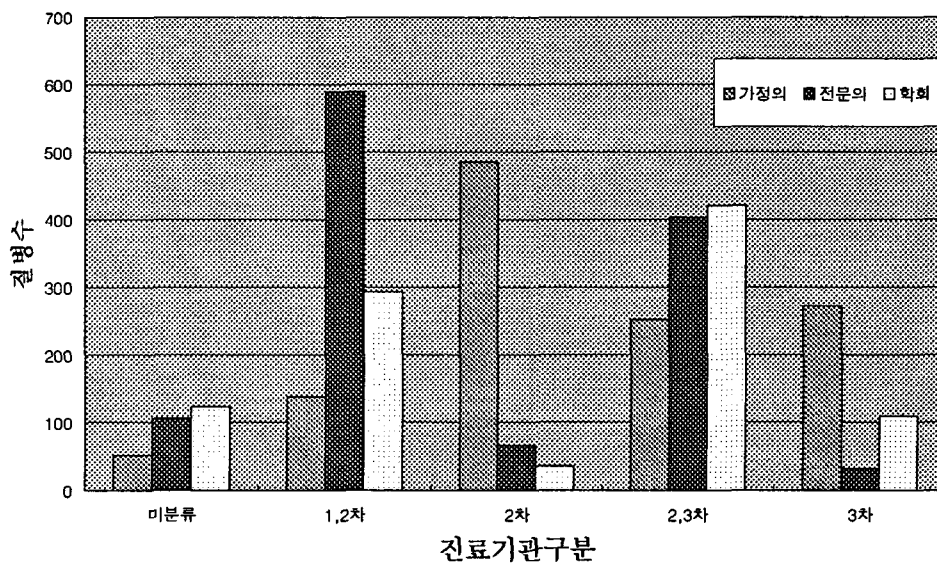


표 3 전체 입원질환 질병분류안 비교

	미분류	1,2차	2차	2,3차	3차	계
가정의	52 (4.3)	138 (11.5)	486 (40.5)	253 (21.1)	272 (22.6)	1201 (100.0)
전문의	107 (8.9)	590 (49.1)	67 (5.6)	404 (33.6)	33 (2.7)	1201 (100.0)
학회	123 (12.5)	293 (29.8)	36 (3.7)	422 (42.9)	110 (11.2)	984 (100.0)

전체입원질환질병분류분포



<표1> 외래질환 질병분류안 일치빈도

외래질환	질병수	완전일치	부분일치	전체일치
내 과	208 (100.0)	101 (48.6)	63 (30.3)	164 (78.8)
외 과	56 (100.0)	17 (30.4)	37 (66.1)	54 (96.4)
산부인과	39 (100.0)	5 (12.8)	17 (43.6)	22 (56.4)
소 아 과	191 (100.0)	33 (17.3)	29 (15.2)	61 (31.9)
정형외과	159 (100.0)	46 (28.9)	61 (38.4)	107 (67.3)
신경외과	42 (102.4)	16 (39.0)	12 (29.3)	28 (68.3)
신 경 과	18 (100.0)	14 (77.8)	6 (33.3)	18 (100.0)
정 신 과	25 (100.0)	4 (16.0)	14 (56.0)	18 (72.0)
이비인후과	77 (100.0)	55 (71.4)	19 (24.7)	74 (96.1)
안 과	70 (100.0)	16 (22.9)	28 (40.0)	44 (62.9)
피 부 과	74 (100.0)	17 (23.0)	27 (36.5)	44 (59.5)
비 뇨기과	5 (100.0)	0 (0.0)	4 (80.0)	4 (80.0)
총 계	964 (100.0)	324 (33.6)	317 (32.9)	639 (66.3)

<표2> 입원질환 질병분류안의 일치빈도

임상과목	질병수	완전일치	부분일치	전체일치
내 과	302 (100.0)	126 (41.7)	105 (34.8)	231 (76.5)
외 과	133 (100.0)	25 (18.8)	68 (51.1)	103 (77.4)
산부인과	94 (100.0)	7 (7.4)	5 (5.3)	12 (12.8)
소 아 과	260 (100.0)	49 (18.8)	56 (21.5)	105 (40.4)
정형외과	124 (100.0)	22 (17.7)	81 (65.3)	103 (83.1)
신경외과	60 (100.0)	30 (50.0)	17 (28.3)	47 (78.3)
신 경 과	22 (100.0)	15 (68.2)	0 (0.0)	15 (68.2)
신경정신과	39 (100.0)	7 (17.9)	1 (2.6)	8 (20.5)
이비인후과	41 (100.0)	25 (61.0)	9 (22.0)	34 (82.9)
안 과	14 (100.0)	2 (14.3)	0 (0.0)	2 (14.3)
총 계	1094 (100.0)	313 (28.6)	347 (31.7)	665 (60.8)